



② 일본의 사무기기업계 동향

미 테러의 영향으로 명암이 갈라진 일본 사무기기업계

2001년도 상반기 일본 사무기기업계 결산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집계된 리코의 매출액은 8200억엔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5% 증가했고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7.0%로 건실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코니카의 경우 매출액 2671억엔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9억엔이 감소하는 등 일본 사무기기업계 중간 결산 결과 격차가 엇갈리고 있

다. 본고는 '일본 월간 Copy Machines 11월호'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리코

2001년 상반기 동향

지난해 상반기 리코그룹에서의 매출액은 8200억엔으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11.5% 증가했다. 또한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7.0%이다.

국내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총 0.7% 감소된 것으로, 사무기기는 디지털 PPC나 MFP 등의 프린팅 시스템을 중심으로 2.3% 증가되는 등 건실한 추이를 보였다. 또한 해외판매 매출액에 대해서는 사무기기 중심의 순조로운 추세였다. 이는 2001년 1월에 매수한 레니에월드와이드사의 연결에 의한 매출증가나 엔화약세 영향도 있어 전년 상반기에 비해 31.6%나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또한 환율영향을 제외한 실질 해외 매출액 증가율은 19.8%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고부가가치 상품인 MFP의 매출 증가나 환율엔저 영향을 통해 인건비, 연구개발비의 증가나 레니에월드와이드사의 연계에 의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를 보전, 전년 상반기에 비해 7.2% 이익이 증가했다. 이 결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10.1% 증가됐다.

연별 분야별 매출액

1. 화상솔루션-디지털화상

디지털PPC는 주력상품인 신세대 디지털복사기 'imagio Neo350/450' 시리즈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호조추이를 보였다. 팩스등의 하락을 흡수하고 전년 상반기에 비해 7.8%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주력인 디지털PPC의 호조에 대해 레니에월드와이드사의 연결 영향도 있어 전년 상반기에 비해 25.8%나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2. 네트워크 IO시스템-프린팅시스템

리코그룹에서는 국내에서의 프린팅 기기의 확대와 프린팅 솔루션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MFP나 고속 고화질 컬러 레이저프린터 'IPSiO Coor 8000' 등의 신제품 투입에 따라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56.8% 증가하는 등 대폭적으로 확대됐다.

3. 네트워크 시스템 솔루션

리코그룹에서는 PC 유스웨어 도큐먼트 솔루션 등 네트워크에 대응한 솔루션 비즈니스를 강화해서 국내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전년 상반기에



부문별 매출액

리코

(백만 엔)

부문	2001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복사기기	510,694	62.3%	433,114	58.9%	17.9%
국내	230,384		226,651		1.6%
해외	280,310		206,463		35.8%
정보기기	218,879	26.7%	198,296	27.0%	10.4%
국내	149,016		144,143		3.4%
해외	69,863		54,153		29.0%
기타	90,514	11.0%	103,893	14.1%	△12.9%
국내	73,325		85,329		△14.1%
해외	17,189		18,564		△7.4%
합계	820,087	100.0%	735,303	100.0%	11.5%
국내	452,725	55.2%	456,123	62.0%	△0.7%
해외	367,362	44.8%	279,180	38.0%	31.6%
미주	162,666	19.8%	112,496	15.3%	44.6%
구주	148,135	18.1%	117,183	16.0%	26.4%
기타	56,561	6.9%	49,501	6.7%	14.3%

비해 2.4%증가로 견실하게 성장했다.

앞으로의 전망

국내적으로는 MFP를 주축으로 한 프린팅 시스템의 계속 전개에 의한 일층 확대가 예상되고, 컬러기기(PPC, MFP, 레이저프린터)상품의 라인업 충실과 판매 강화 및 솔루션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시켜 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레니에월드와 이드사에 의한 신규 채널을 활성화시켜 대규모 거래선으로 판매 강화가 예상되고, MFP를 주축으로 한 프린팅시스템의 계속 전개로 일층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칼라기기(PPC, MFP, 레이저프린터)의 상품 라인업 충실과 판매강화에 대해 국내외를 통한 경쟁력 강화나 코스트의 체질개선을 위한 프로세서의 개선 등 모든 시책 추진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출액 1조6700억엔(전년비 8.6% 증가), 영업이익 1200억엔(총 14.2% 증가), 세전이익 977억엔(동 10.5% 증가), 당기순이익 590억엔(동 10.8% 증가) 등이 전망된다.

미놀타

(백만 엔)

부 분	2001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정보기기	복사기	130,618	54.0%	115,962	52.0%	12.6%
	프린터	38,088	15.7%	42,204	18.9%	△9.8%
	기타	13,059	5.4%	13,533	6.1%	△3.5%
계	181,766	75.2%	171,700	77.0%	5.9%	
광학기기	카메라	41,783	17.3%	37,585	16.9%	11.2%
	계측기기	4,431	1.8%	4,398	2.0%	△0.8%
	광시스템	3,860	1.6%	4,163	1.9%	△7.3%
	기타	524	0.2%	441	0.2%	18.8%
계	50,600	20.9%	46,588	20.9%	8.6%	
기타의 사업	9,230	3.8%	4,593	2.0%	101.0%	
합계	241,596	100.0%	222,882	100.0%	8.4%	

코니카

(백만엔 엔)

부 분	2001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증감률
	금액	금액	
(감광재료관련사업)	1,489	1,525	△ 2.7%
(정보기기관련사업)	1,182	1,185	△ 0.3%
계	2,671	2,710	△ 1.5%

캐논

3/4분기 결산

매출액은 6802억8100만엔



(전년동기비 7.6% 증가), 영업이익은 782억 4600만엔(동 30.3% 증가), 세전이익은 700억 9100만엔(동 12.8% 증가), 당기순이익은 374억 7000만엔(동 4.6% 증가) 등을 나타냈다.

9개월의 결산

매출액은 2조 1542억 5600만엔(전년동기비 10.2% 증가), 영업전이익 2470억 6000만엔(동 34.8% 증가), 세전이익은 2387억 1300만엔(동 32.7% 증가), 당기순이익은 1375억 3300만엔(동 31.8% 증가) 등을 나타냈다.

2001년의 전반적인 예상

매출액은 2조 8900억엔(전년동기비 7.2% 증가), 영업이익은 2950억엔(동 19.9% 증가), 세전이익은 2800억엔(동 23.2% 증가), 당기순이익은 1610억엔(동 20.1% 증가)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품사업별의 상황

사무기기 사업으로는 복사기 'iR5000/6000' 시리즈에 대해 지난해 7월에 발매한 'iR3300' 시리즈 등을 중심으로 흑백 디지털복사기가 대폭 신장을 나타냄과 함께 칼라기기에 대해서도 신제품 투입에 따라 순조롭게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요인에 따라 15.1%의 수익이 증가됐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PC시장의 수요부진 영향 등에 의한 레이저빔 프린터 및 버블젯 프린터 매출이 현지 통화 베이스로 크게 감소를 보이고 환율의 엔저경향 추이로 인해 1.7% 감소됐다.

한편, 정보통신기기는 팩시밀리가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판매가격의 하락 영향을 받아 전체로서는 2.8%의 미미한 수익 증가로 됐다.

이 결과 사무기기 사업 전체의 매출액은 5134억엔(전년동기비 5.2% 증)으로 견실한 추이를 나타냈다.

사무기기 사업의 영업이익은 코스트 다운이나

엔저에 의한 채산성의 호전 등에 의해 837억엔(전년동기비 15.5% 증)으로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달성했다.

전체의 전망

전체의 업적 전망에 대해서는 연결매출액 2조 8900억엔, 연결세전순이익 2800억엔, 연결당기순이익 1610억엔으로 수정되고, 단독업적에 대해서도 매출액은 1조 7000억엔, 경상이익은 2000억엔, 당기이익 29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코니카

2001년 상반기 동향

지난해 상반기의 매출액은 2671억엔(전년동기비 1.5% 감소)으로 전년동기 39억엔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감광재료관련 사업이 1489억엔(동 2.3% 감소) 전년동기 35억엔 감소로 되어 정보기기 관련 사업은 1182억엔(동 0.3% 감소)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억엔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38억엔으로 전년동기의 45억엔의 감소(동 24.8% 감소)했고, 경상이익은 이자가 있는 부채 압축에 따른 지불이자 등 영업의 비용 감소에 따라 93억엔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억엔 감소(동 7.8% 감소)했다.

부문별 현황(정보기기관련 사업)

오피스 도큐먼트 컴퍼니의 수량은 전년동기를 밑돌았으나 중속기분야의 강화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이 분야에서는 순조롭게 수량을 신장, 전체 매출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신제품으로써 독자개발의 중합법(重合法) 토너를 탑재해 세계 최고수준의 화질을 실현한 '코니카 Sities7165'를 투입했다. 대폭적인 코스트다운을 달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설계시스템을 도입, 네트워크의 대응을 가능케



하는 컨트롤러와 본체의 동시 판매에 충실했다. 디지털 비율은 매출액으로 80%를 넘었다.

중기경영계획(IJT사업추진센터) 가운데 잉크젯 사업을 코니카 전략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아 네트워크 시대의 고화질 화상 출력 수단으로써 그 기술을 대형 신규사업으로 육성중이다.

고속·고화질의 헤드와 잉크,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호평을 얻은 잉크젯용 광택지 삼위일체의 개발을 하고 있다. 헤드와 잉크라는 이른바 컨포넌트 비즈니스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체의 예상

매출액은 5400억엔(전년비 0.6% 감소), 경상이익은 200억엔(동 0.5% 감소), 당기순이익은 90억엔(동 40% 감소)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놀타

2001년 상반기 동향

정보기기사업으로서 주력기종 'Di251/351'에 의해 'DIALTA'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시켜 진행함과 함께 디지털 풀 칼라 복사기 시장에서도 전기에 투입한 'CF2001/1501'에 의해 칼라 출력의 매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매촉진에 주력해 왔다.

또한 프린터 관련으로 해서는 컨트롤러조립을 중국 공장에 이관하여 코스트다운을 도모, 전략기종으로서 칼라 레이저 프린터 'magicolor 2200' 시리즈를 중심으로 판매확대, 채널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시황의 악화, 경쟁의 격화에 의해 정보기기사업의 매출액은 1817억6600만엔이 되고 영업이익은 6억8600만엔으로 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의 매출액은 2415억9600만엔. 경상손실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의 증가, 경쟁격화에 의한 가격 하락, 자산의 평가

손 및 처분 계산상 등에 의해 121억4500만엔. 중간 손실은 추가하락에 의한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 계산외 판매자회사의 영업권 재평가를 전도함에 따라 227억2800만엔이 되었다. 또한 해외 매출액은 1963억5100만엔, 매출 구성비는 81.3%이다.

단독결산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2.4% 감소한 1347억8200만엔으로 되어, 손실 및 중간손실도 각각 47억9800만엔 및 49억2300만엔이다.

전체의 전망

매출액 5000억엔(전년비 108%), 경상이익 △100억엔, 동기순이익 210억엔을 예상한다.

단독 업적 전망

매출액 2800억엔(전년비 100%), 경상이익 35억엔, 동기순이익 △240억엔을 예상한다.

광학세계가 원고를 모집합니다.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광학세계'에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 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원고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전시회 참관기 등
2. 원고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 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 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취재하겠습니다.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581-2321
 FAX. (02)588-7869
 E-mail : pjy@koia.or.kr